

# 서울대 도서관의 회상과 고문헌자료의 내력

법과대학 법학부 최종고

## I. 서언: 정년퇴임과 도서관

솔직히 정년퇴임을 하고 나니 도서관이 더욱 가까이 오는 느낌이다. 퇴임과 함께 연구실과 집에 있던 책들을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기증해서 때로는 과거의 내 책들을 보기 위하여서도 도서관에 더 자주 가게 된다. 그럴 때마다 너무 일찍 기증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들지만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더 보람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잠재운다. 어쨌든 서울대 도서관은 나의 학생시절 입학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래고 진한 인연을 갖는 곳이다.

나는 도서관장을 지냈거나 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 본 일이 없다. 그래서 나의 도서관에 관한 회상은 어떤 공적인 관점이 아니라 순전히 이용자의 입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개인적 기억들이다. 그런데 학생시절부터 들은 얘기가 정년을 하고난 지금도 수수께끼 같이 풀리지 않고, 주변에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 문제를 좀 천착해보려고 한다. 우리의 학계현실을 잘 알고 있는 처지에 누구를 책망하고 책임을 돌리기보다 이제는 30년 이상 몸담은 나 같은 사람 자신이 책임을 느껴야 할 처지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수필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지만, 오랜 궁급증을 추적하는 나름대로 진지한 추구이다. 1975년 관악캠퍼스로 오면서 경성제대 도서들을 6층에 두어 '구관(舊館)도서'라 부르다가 지금은 '고문헌자료'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개인기증도서도 호를 따서 여기에 문고로 설치하였다. 이렇게 바뀐 이름으로 있는 고문헌 자료의 내력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 II. 대학생 시절

1966년 3월 동숭동의 법대에 입학하여 보니 법대 도서관은 비교적 새 건물로 1층에는 사무실과 모의법정이 있고, 2층은 열람실, 3층은 교수연구실로 되어 있었다. 법대도서관은 주로 법학서적만 있고 학생들도 고시공부의 독서실 정도로 이용하고 있어서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학생들이 창가 좌석을 자리다툼하고 마분지와 신문지로 칸을 가려놓고 발꼬랑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중앙도서관에 가기를 좋아했다. 구름다리를 넘어 문

리대로 가면 마로니에 나무와 시계탑이 서 있는 훨씬 분위기가 좋은 캠퍼스이고, 붉은 벽돌의 중후한 중앙도서관에 다양한 책들이 있었다. 나는 철학, 종교, 문학에 관한 교양서들을 탐독하였다. 도서를 출납해 주는 아주머니 사서가 출납인을 찍어 주는데 무척 우아해 보였다. 지금도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름이 알고 싶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출입구에 앉은 수위 할아버지(계병진)가 어찌 무서운지 모두 벌벌 떨었다. 조금만 잡담을 해도 학생 이름이 튀나면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때는 개별 좌석이 아니라 긴 줄책상에 열 명 이상 잇대어 앉아 독서하고 있어서 이렇게 균기를 잡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때 나는 출입구에서 어떤 노년의 신사 한 분을 가끔 만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봉덕(田鳳德, 1910~1998) 변호사였다. 그는 경성제대의 수재로 변호사가 되어서도 암행어사제도 연구를 계속하여 1968년에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sup>1)</sup> 도서관장이던 정광현 교수와 가까웠고, 그 후임자인 김계숙 교수와도 친했기 때문에 자주 오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처음 그분과 알게 되고 나도 후일 법사학(法史學)을 전공하여 초대 법사학회장으로 모시게 되었다. 김계숙 관장과는 내가 청운동 김경덕 의원덕에 가정교사를 할 때 같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김 교수는 법대생인 내가 철학과 종교에 관심이 많다고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보니 나는 제1대 관장 김진섭 교수(독문학)를 빼고는 제2대 이병도 관장, 제3대 정광현 관장부터 지금까지 30여 대의 관장을 모두 알게 되었다. 특히 이만갑, 박병호, 박효근, 진교훈, 김종서, 그리고 현재의 박지향 관장과 이런저런 접촉을 한 기억이 난다.

나는 법학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잡다한 독서로 4년을 보냈다. 당시 실존철학의 영향으로 키에르케골, 하이데거, 야스퍼스를 읽었고, 브룬너, 틸리히, 니이버 같은 신학자들의 책도 탐독했다. 그것이 교양이 되어 나는 30여 년간 교수생활에서 강의시간에 가끔 대학시절의 독서에 대하여 얘기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흔히 하는 얘기지만 서울대 도서관은 나의 평생의 교양과 지식의 원천이 된 것이다.<sup>2)</sup> 독서하다 눈이 피곤하면 창문 밖으로 내다보던 나무 잎새, 마로니에, ‘세느강’의 개나리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1) 자세히는 즐고, 전봉덕, <한국의 법률가>, 서울대출판문화원, 2013, 357-368쪽.

2) 자세히는 나의 대학회고록, <서울법대시절: 내가 본 서울대 반세기>, 서울대출판문화원, 2013 참조.

### III. 대학원 시절

1970년 봄에 법대를 졸업하고 이어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노동법을 전공하였다. 김치선 교수께서 법대도서관 3층에 있는 연구실을 쓰라고 하셔서 무척 고마웠다. 김교수는 원체 국제 활동이 많으셔서 연구실은 거의 나 혼자 사용하였다.<sup>3)</sup> 하룻밤은 연구실에서 새웠는데, 금지된 일이라 창문을 가리고 촛불로 책을 읽었다. 옆에는 유기천, 이한기, 김증한, 김철수 교수 연구실들이 있었고, 가장 열심히 나오시는 분은 박병호 교수였다. 도서관장은 최종길 교수였고, 행정실에는 구주서 선생이 깐깐하면서도 대학원생에게는 특별히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이 무렵 내 친구들이 주동이 되어 사법시험 공부에 필요한 논문들의 목록을 만들어 소책자 형태로 프린트했는데, 그것을 황적인 교수가 이어받아 후일 〈한국법률문헌색인〉으로 발전시켜 서울대출판부에서 5권까지 발간하였다.<sup>4)</sup> 참으로 역사적인 일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경제학을 강의하시는 임원택 교수는 “서울대 도서관은 국보급인데, 경성제대 도서관의 독일 책을 많이 물려받아서이다”고 하셨다. 후일 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중앙도서관에 가서 ‘구관도서’를 이용하였다. 대부분 먼지가 쌓인 채 아무도 이용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독일 법철학자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의 책들을 많이 빌려 보았다<sup>5)</sup>. 나중에 알고 보니 경성제대에서 로마법을 가르친 후나다 교지(船田亨二, 1898~1970) 교수가 경성제대 도서관의 관장이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관한 책과 독일서적을 다량 구입하여 비치한 것이었다.<sup>6)</sup>

3) 김치선 교수에 대하여는 졸저, 김치선, 〈한국의 법학자〉, 서울대출판부, 2007, 463-478쪽.

4) 〈한국법률문헌색인〉은 제1권이 1982년에 나왔는데, 한국법학의 초기문헌을 알려면 이 책이 필수적이다.

5) 나는 구관도서에 있는 라드브루흐의 책을 많이 이용하여 1972년에 석사논문을 썼고, 1975년에 그의 〈법철학〉(*Rechtsphilosophie*)을 번역·출간하였고, 1995년에 단행본 연구서 〈G. 라드브루흐연구〉(박영사)를 내었다.

6) 나는 후나다 교지에 관하여 알리고 일본 동경에서 그의 손자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의원을 방문한 바 있다. 그는 매우 친절히 맞으며 서울에서 조부가 쓴 저서 〈로마법〉의 원고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으며, 서울대에서 대학사 전시회 같은 계기가 있으면 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후나다 교지는 1945년 11월 20일 일본에 귀국하였고, 이듬해 4월에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어 3회 재선되었고 행정관리청장관, 배상청장관을 지냈다. 그의 형 후나다 나까(船田中)는 중의원 의장까지 지냈고, 이 가문에서 설립한 新作學院은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있다. 5권으로 된 〈로마법〉은 일본 최고의 연구서의 하나로 평가되고, 〈법사상사〉도 저술하였다. 그가 만년에 쓴 조선 회고록, ‘한국과 나(일어)’는 〈親和〉 1946호(1970)에 3회 연재되었으나 미완성으로 72세로 작

이런 경위에 대하여는 자세히 추적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단서를 찾아 뒤에 서술하려 한다.

대학원 시절 1970년 11월에 전태일 사건을 경험하였고, 당시 사회정의감에 불타던 나의 한계를 의식하고 진로를 순수학문연구로 다짐하였다. 법대생이 경찰을 구타했다고 색출하러 들어오겠다고 하여 법대 도서관에서 밤새 농성하며 대치하던 때 나도 그 안에 있었다. 구타자는 용기 있게 나오라는 이한기 학장의 설득에도 학생들은 끝내 버티다 새벽녘에 귀가하였다. 이런 학생운동의 현장에서 대학원생으로 처신이 어려웠다. 학생사태 때 도서관이 농성장 혹은 피신처로 되는 일은 후일 교수가 되어서도 목격하였지만, 이런 아이러니는 한국적 현상으로 또 다른 애깃거리이다.<sup>7)</sup>

1975년 봄에 관악산으로 종합캠퍼스 이전을 하고 나는 연말에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유신체제가 최고조로 공고해지던 때에 학교에 나와도 답답하기만 하고 공부가 안 되어 유일한 탈출구를 외국유학에서 찾았던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3년 반 동안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550년 전통을 가진 대학도서관의 풍부함을 만끽하였다. 그것이 부러운 만큼 서울대 도서관을 많이 생각하였다. 특히 도서관에는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본실(手稿本室, Handschriften-Abteilung)이 있어 어떤 오리지널한 연구를 하려면 이곳에서 친필자료를 보는데서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하이델베르크대학에 가서도 나의 학문적 멘토인 라드브루흐의 친필유품이 1만 4천 건이 있음을 보고 직접 핸들링했던 것은 잊을 수 없는 값진 체험이었다.<sup>8)</sup> 이런 체험들이 후일 서울법대 귀중문서실과 역사관을 설립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

#### IV. 소장교수 시절

1979년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Dr.jur.) 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 다시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다. 10·26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이 있어 일체 인사행정도 마비되다시피 했던 것이다. 1년 반 동안 전임발령도 못 받고 시간강사로 강의만 하면서 연구실도 없으니 규장각에 나와 머물렀다. 그때 정옥자 박사가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후일 규장각 관장까지 되셔서 관장실에서 만나 그때가 연구의 최고 하이피치 시절이었다고 회상하며 웃었다. 나도 여

---

고하였다. 경성제대의 역사와 함께 연구할 중요 인물이다.

7) 자세히는 이신범 편, <서울법대학생운동사>, 블루프린트, 2008 참조.

8) 이 결과로 쓴 논문이 좋고, 구스타브 라드브루흐 유품목록, <법학>(서울대) 23권 2호, 1982이고, 독어논문 Gustav Radbruch und Ostasien, *Festschrift f. Alexander Hollerbach*, Berlin, 2001, SS.485-500이다.

기서 쓴 〈법사와 법사상〉(박영사)이 저작상을 받고, 전임강사 발령도 받는 행운이 트였다. 그 후에 법대가 현재의 위치로 내려오면서 내 연구실에서 내려다보면 규장각 지붕이 내려다보여 나와 내 학문의 번지수 같은 것을 생각하곤 하였다.<sup>9)</sup>

오산(午山) 유동렬(柳東烈, 1930~1992) 선생을 알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고 기억된다. 법대의 대선배가 중앙도서관의 지킴이로 계신 것을 알고 놀랐고, 유선생님도 나를 각별히 반겨 주셨다. 정광현 도서관장의 사랑을 받아 도서관 인생이 되신 분인데, “내 신세 조졌지 뭐.” 하시며 약간 원숭이 같은 익살스런 웃음을 터뜨리던 모습이 떠오른다. 박병호 교수와도 절친하셨던 것을 알고 있다. 1992년 2월에 그가 서울대 첫 일반직 정년퇴임을 할 때 〈도서관논집〉을 증정받았는데, 여기에는 박병호 교수의 ‘우리나라 고문서자료의 수집정리’라는 체험적 논문도 실려 있고, 동료였던 백린 선생의 ‘The History of Printing in Korea’라는 영문논문도 실려 있다. 나는 글을 쓰지는 않았는데 한 권 선물받아 지금도 갖고 있다. 당시 〈문화일보〉(1992.2.22)에 ‘법조인 꿈 버리고 책사랑 40년 한우물’이란 제하의 인터뷰 기사를 내가 스크랩해 둔 것이 끼어 있어 읽어 보니 이런 대목이 나온다. “서울대 도서관사 정리가 끝나면 경성제대 장서 입수경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가끔 일본 학자들이 우리도 잘 모르는 자료를 우리 도서관에서 찾아내는 것을 볼 때마다 부끄러웠거든요”. 이 대목이 바로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이고, 그래서 정년 후 일찍 타계하신 오산 선생이 더욱 그리워진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무도 이 방면의 연구를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이다.

1988년 하버드대 옌칭연구소(Yenching-Institute)에 가 있을 때 백린(白麟) 선생과 자주 만났다. 그 때는 이미 그곳에서도 은퇴하셨지만 같은 교회에 다녀서 자주 대화할 수 있었는데, 경성제대의 독일어 장서는 전쟁배상금 대신으로 받았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했다. 아무튼 백 선생과 세일럼(Salem)의 피바디박물관(Peabody Museum)에 가서 유길준의 유품도 보고 담머 아카데미(Governer Dummer Academy)도 함께 방문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 무렵 유길준 연구가로 서울대 화학과 출신의 변종화(卞鍾和) 박사(로웰대 교수)와 함께 찾아다니던 추억도 생각한다. 이런 경험을 기초로 나는 1995년에 〈신 서유견문〉(웅진)을 출간하였다. 알고 보니 변 교수는 경성제대 출신의 변정규(卞廷奎, 1919~1993, 전 농림부 농상국장)씨의 아들인데, 변정규는 서울대가 부산으로 피난 갔을 때 자기 집 뒷마루를 내어 주어 법대 첫 강의를 하게 한 인물이다.<sup>10)</sup> 일석 이희승 선생과 대학동기이라 오랜 교분을 갖고 1973년 서울대가 관악으로 옮길 때 울적한 심정을 시로 써 받아 간직해 왔다. 우연한 계기에 알게 되어 나는

9) 줄시, 규장각을 바라보며(2006.5.7), 〈시 쓰는 법학자〉, 관악, 2007, 21쪽.

10) 김성칠, 〈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사, 1993, 314쪽. 최종고, 김성칠의 생애와 문학, Fides(서울 법대문우회지) 3호, 2014, 33-61쪽.

2013년 정년퇴임 때 낸 〈서울법대시대〉(서울대출판부)에 수록 공개하였다. 일석의 시 ‘서울대가 간 후’는 이리하다.<sup>11)</sup>

동승동 캠퍼스는  
조각조각 무너지고  
즐비한 호화주택  
위풍이 으리으리  
반백년 학문의 전당  
그 바람에 날렸다.

한 그루 마로니에  
십수 그루 은행나무  
그 언제 그 밑에서  
철학하던 시절이여  
변화가 진보만이라  
전통 잃은 고아도

몰골 변한 낙산 위엔  
아파트가 진을 치고  
낭만 서린 대학가엔  
공해 공기 자욱하이  
이것이 진정 현대를  
잘도 상징함인지

나는 또한 이 시를 2013년 10월 12일 대학원동창회와 명예교수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옛 동승동 캠퍼스에서의 〈마로니에의 추억을 찾아서〉 홈커밍 행사 때도 프로그램에 실었다. 지금 우리 후배들은 잊어버리고 있지만 당시 그곳에 있던 원로교수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였다. 아무튼 50년 만에 다시 찾은 옛 캠퍼스에는 옛 도서관은 자취도 없고, 마로니에공원에 총장실이 있던 본부건물만 ‘예술가의 집’이 되어 외롭게 남아 있다. 도서관 앞을 흐르던 ‘세에느강’과 ‘미라보다리’는 위치조차 가늠키 어려웠다. 그래도 내 눈에 는 그때의 노오란 개나리와 플라타너스들이 아른거렸다.

---

11) 실은 이 시의 제목은 없어 내가 지어 붙였다. 이 시는 일석이 학림다방에서 변정규씨에 즉석에서 써 준 것이라고 들었다.

## V. 원로교수 시절

나는 1981년에 전임발령을 받아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교수로 32년 2개월을 서울대에 재직하였다. 교수로 있으면서 도서관의 이용은 불가결하다. 그렇지만 도서관장직은 맡은 일이 없다. 심지어 법대도서관장도 지내지 않았다. 보직은 맡을 다른 교수들이 있고, 나는 도서관을 이용해 책이나 읽고 쓰는 철저히 에고이스틱한 수혜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에 오고갈 때 만나는 사서들과 친해지고 그것이 즐거웠다. 이상은, 구주서, 박종근, 김완태, 윤승현, 이제원, 강우상, 안장희, 김옥수 사서 등의 얼굴이 떠오른다. 나는 그래도 이들이 도우회(圖友會)를 만들어 회지까지 내는 줄은 모르고 지냈다. 얼마 전 법대 도서관의 김창섭 사서가 <도우회보> 제17호를 주어서 보니 주소록이 있어 당장 몇 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두 반가운 옛 목소리였다. 나는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이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로 살지만 도서관인들은 “기브 앤드 기브”(Give and Give)로 산다는 미국서 읽은 글이 생각나 도서관인들을 특히 좋아한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하겠다. 외국에 나가면 서울대 교수라 해도 잘 모르지만 도서관에 가서 내 이름을 대면 당장 알아봐 준다. 이때처럼 기분이 좋을 때가 없다. 내가 미국 의회도서관의 사서 양기백 박사,<sup>12)</sup> 조성운 박사<sup>13)</sup>를 만나고 송승규 선생을 알게 된 것도 모두 내 저서 덕분이었다. 얘기를 나누다 송 선생님은 신학자 송창근 박사의 자제로 김천고보 재학시 나의 선친과 한 책상에 앉았던 친구임이 밝혀져, 6·25 때 돌아가신 부친처럼 지내자고 하셔서 택에 한 달 지낸 일도 있었다. 또 베를린의 프로이센도서관에서도 태용운 사서를 만났더니 당장 나를 알아봐 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 부친이 법관양성소 교관 태명식 변호사였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외국 도서관에 가면 내 영문저서 *Law and Justice in Korea*(2007)와 *East Asian Jurisprudence*(2009)의 저자로 알려져 사서들이 잘 대우해 준다. 이렇게 도서관은 국내외를 통하여 하나의 지성공동체로 독특한 문화이고, 또 안락한 정신공간을 이루고 있다.

---

12) 본고를 쓰고있는 오늘(1.29) 양기백 박사의 부음을 들었다. 그는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46년간 사서로 근무하면서 한국학의 기초를 놓고 2015년 1월 16일 96세로 타계하셨다. 나는 1988년에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일이 있는데, 특히 그가 쓴 다산 정약용에 대한 영문논문은 학생시절에 읽은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다.

13) 조성운박사는 법대 7회 졸업생으로 일찍 미국에 유학하여 미국회도서관의 동아시아법 과장으로 있었다. 내가 북한법에 관한 자료를 모을 때 도움을 주셨고, 유기천(1915~1998) 전총장에 관한 증언도 해주셨다. 지금은 샌디에고에 살고 계신다.

## VI. 개인장서 기증

나는 전공이 법학과 역사학, 그리고 철학의 교차로인 법사상사학(法思想史學)이기 때문에 장서가 다양하다면 다양하고 잡다하다면 잡다하다. 크게 보면 인쇄된 책뿐만 아니라 너절하다할 수도 있는 문서류로 나뉜다. 도서관(library)과 문서고(archive)의 양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도서관 외에 문서고의 필요성을 서울대에서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적어도 한국법학의 역사는 서울법대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면이 크므로 한국법학사의 보존으로 서울법대 귀중문서실을 1992년에 개설하였다. 1988년에 하버드 로스쿨에 있을 때 귀중문서실(Treasure Room)을 인상 깊게 보고 이름을 따온 것이다.<sup>14)</sup> 이것이 대학 차원의 최초의 문서고의 탄생이라고 <동아일보>에서 크게 보도해서 알려졌고, 서울대 안에서도 김기석 교수가 이를 참고해 서울대 문서고를 설치하여 오늘날 기록관으로 발전하였다. 법대는 2000년대에 들면서 로스쿨로 바뀌어 새 도서관을 지어 과거의 국산(菊山)법학도서관 1층을 법대역사관으로 개조했다. 귀중문서실에 기증한 문서류 외에 추가하여 일체를 이곳 역사관에 기증하였다.<sup>15)</sup> 권이혁 전 총장은 개관식에 참석하셔서 이곳은 도서관과 아카이브와 뮤지엄의 종합인 라카이브(Larchivum)이라 불러 주셔서 참으로 고맙다. 2011년 10월에 <서울법대 역사관 최종고 교수 기증자료집>을 발간하였고, 정종섭 학장은 역사관 안에 나에게 대한 감사패를 하나 붙박아 주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문서류는 일단 처리되었고, 지금도 역사관에 전시된 자료들을 볼 때마다 감회를 느낀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분이다.

정년을 앞두고 나도 연구실과 집 서재에 있는 장서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요즘은 과거와 달라 도서관에서도 기증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내가 법학만이 아니라 역사와 인문학에도 관심이 있으니 중앙도서관에서도 받아 주어 고맙다. 물론 전부를 몽땅 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2012년 11월 도서관 직원 3명이 와서 이삿짐센터 트럭으로 가져갔다. 수개월 분류작업을 하여, 전체 6,200책에서 등록이 1886책, 보류가 2,723책, 법대도서관으로 내려준 것이 1,063책, 입력보류가 528책이라고 알려 주면서 <최종고 명예교수님 기증자료목록집>(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만들어 주었다.<sup>16)</sup> 그리고 도서관 로비에 감

14) 최종고, <하버드 스토리>, 고려원, 1989, 163쪽. 최종고, 서울법대 귀중문서실의 설치경위, <법사학연구> 13호, 1992, 131-154쪽.

15) 최종고, 서울법대 역사관의 의의와 과제, <정의의 종> 18호, 2010, 3-5쪽, 그리고 줄져, <서울법대시대>, 2013, 550-561쪽.

16)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도서관의 장서가 많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기증서는 복본이 되어 등록되



사패가 박혔다. 2013년 2월 말 정년하는 달에 연구실에 있는 책 2천 권 정도를 다시 기증하였다. 중앙도서관과 법대도서관에 분산하여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기증하고 나니 시원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아무튼 큰 숙제를 해결한 기분이 다. 좀 이른 감도 있지만 솔직히 나도 이제는 전공연구와 학문적 글을 쓰는 데에서 해방되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였다. 그런데 책이란 묘한 것이라 기증하고 빈 서가가 어느새 또 다시 찼고,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여전히 도서관을 들락거리며 책을 빌리고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지 무슨 묘책이 있겠나 싶다. 결국 도서관 인생이라 하겠다.

## VII. ‘구관도서’의 입수 경위

얘기가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 내가 진지하게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다. 서울대 도서관이 국보급으로 자랑할 만한 경성제대 도서, 즉 ‘구관도서’ 혹은 고문헌자료의 입수경위에 관한 내용이다. 위에 적은 대로,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편에 들어 중국의 산둥반도를 차지하고 있던 독일에게 전승국으로 전쟁배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면 우리는 일본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남의 얘기같이 들리는 면도 있지만, 당시 상하이에서 미국에 가기 위해 러시아 치타(Chita)에 7개월 머물던 춘원 이광수(1892~1950)는 바로 그 전쟁 때문에 길이 막혀 미국행을 포기하고 귀국하고 말았다. 그 길로 다시 일본으로 가서 와세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다 1919년 졸업을 두 달 앞두고 이른바 동경유학생 독립선언문을 쓰고 다시 상하이로 갔다. 1920년에 돌아와 동아일보 편집국장까지 되었고, 1926년에 경성제대가 설립되자 선과생으로 제1호 입학생이 되었다.<sup>17)</sup> 경성제대 도서관은 1926년 5월에 본부 가건물 안에 개설되었다고 하는데, 그가 얼마나 이를 이용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그는 경성제대 캠퍼스를 좋아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심지어 안호상과 모운숙을 맞선 보인

---

지 않는다.

17) 자세히는 이충우/최종고,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사, 2012, 115-116쪽;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편, <서울대인명록>, 2012, 136쪽에는 경성제대 문학과 1929년 졸업반에 이광수(1926)의 이름이 있고, 색인란에는 준(準)회원으로 밝혀져 있다. 제대로 졸업했다면 이재학, 박충집, 이종수, 조운제, 채관석, 신석호, 김계숙, 현준혁, 강성태, 유진오와 동기생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2011년 가을에 서울대 기록관에 85년간 잠자고 있던 학적부를 발굴했는데, 이에 대하여는 <중앙일보> 2012년 2월 28일자 기사와 최종고, 이광수의 경성제대 입학과 최근 단상, <춘원연구학회 뉴스레터> 8호, 2012, 14-19쪽 참조 요망.

장소도 이곳으로 삼았다.<sup>18)</sup>

나는 경성제대 도서관에 독일서적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입수되었는지 오랫동안 궁금하였다. 그러다가 근자에 일본인 학자가 이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을 읽게 되었다. 가나자와(金澤)대학의 시무라 메구미(志村 惠) 교수인데, <일독전쟁과 청도치획서적><sup>19)</sup>이란 논문과 <청도치획서적에 관하여><sup>20)</sup>라는 두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전자는 일본이 어떻게 중국 칭타오에 있는 독일 서적을 전쟁배상으로 획득(齒獲이란 말을 쓴다)하였는지를 다루었고, 후자 논문은 그 서적을 어떻게 분산처리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이 키오추의 칭타오에서 획득한 서적을 분산한 도서관은 25개 기관이었는데, 여기에 경성제국대학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궁금해서 시무라 교수의 이메일을 찾아 이 사실을 문의했다. 그는 바로 독일어로 답신을 보내 왔다. 연대적으로 보아 경성제대 도서관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진위여부는 자신이 도서실물을 확인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많은 도서를 확인하고 논문을 쓴 학자이니 그럴 것이다. 학문적 연구과제를 만난 그는 기꺼이 한국에 와서 그것을 확인하겠다고 한다. 나로서도 오랜 의문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그가 3월 12일에 오면 고문헌자료실에서 도서관 관계자들과 함께 실물을 조사하고, 대학원동창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사포럼>에서 발표와 토론을 할까 한다. 여기서의 결론을 언젠가 좀 더 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1월 26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경성제대도서관과 식민지아카이브>라는 HK워크숍이 개최되어 참석하였다.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 이하 몇 연구원들이 연구비를 받아 경성제대 도서관에 관한 총체적 연구를 시작하는 보고회였다. 박지향 도서관장과 김인걸 규장각 원장도 참석하였다. 나는 발표자는 아니지만 1990년대에 경성제대에 관한 공동연구를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본부에서 부결하였는데 이제야 연구가 이루어지니 감회가 깊다고 하였다. 많은 근본적인 문제들도 토론되었다. 그러나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sup>21)</sup>

18) 최종고, <이승만과 메논, 그리고 모윤숙>, 기파랑, 2012, 246-247쪽.

19) <독문연구실보> 18호, 金澤대학독문학연구회, 2002. 17-32쪽,

20) <가나자와대학문학부논집> 27호, 2007, 23-36쪽.

21) 다만 참고로 받은 정근식 교수의 이전 논문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형성과 운영>(사회와 역사 87집)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학우회 회보>(1932. 169-174)에 따르면, 도서관장 및 학생대표들이 1932년 11월 5일 도서관 운영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한 학생이 “독일배상금이 아직도 남아 있느냐”고 묻자, 관장은 이 예산으로 “2차례 책을 구입하였고 이제는 남아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로 미루어 1926년과 1927년에 구입한 특별장서들의 구입자금이 이것으로 충당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 자금으로 구입한 도서들에는 ‘대장성 배상금 특

경성제대 도서관의 개관을 준비하면서 특별장서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기초를 닦았다. 1926년 말에 로마법학자 크니프(Ferdinand Kniep)의 장서 5,639권, 경제학자 쏘바르트(Werner Sombart)의 장서 3,254권, 동양미술사학자 뮌스터베르크(Oskar Münsterberg)의 장서 366권을 구입하였다.<sup>22)</sup> 1927년 7~8월에는 오스트리아 공법학자 테즈너(Friedrich Tezner) 967권을 구입하였다.<sup>23)</sup> 1937년에는 영국 외교관 출신 정부고문 브라운(McLevy Brown)의 동양학 관계 도서 633권, 1938년에는 독일의 저명한 민법학자요 법철학자인 치텔만(Ernst Zittelmann)의 장서 879권을 구입하였다.<sup>24)</sup>

## VIII. 결어: 사람은 가도 도서관은 남아

나는 명예교수로 도서관을 계속 드나들면서 가끔 설송(雪松)문고(정광현)니 심악(心岳)문고(이승녕)니 개인문고를 이용한다. 사람은 가도 도서는 남는다. 시대의 변천과 함께 내 장서는 그렇게 취급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면에서는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더 편할 것이라 생각된다.

요즘은 도서관에 오면 뒤편에 관정도서관이 우람하게 완공을 향해 마지막 손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내가 처음 본 중앙도서관의 위용이 이제는 초라하게 보일 정도이다. 나는 우연히 관정 이종환 회장을 하와이에서 만난 일이 있는데, 참 뜻있는 일을 하셨다고 감사했다. 유한한 인간은 백년을 못살 것이지만 도서관은 점점 풍부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대학이라 하는데, 대학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은 도서관이라 하겠다. 나는 정년 후에도 이런 역사적인 서울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이라 여기고 있다.

한편, 도서관을 포함하여 대학의 모든 시설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지고 풍성해진다 해서 학문의 수준이 자동적으로 높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문과학은 어찌면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수준과 깊이가 더 높은 것이 나오는지도 모른다. 정신력은 곤궁할 때 높아진다는 것은 진리인 것 같다. 우리는 서울대 도서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귀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

별회계 소속 도서'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데, 주로 독일어 자료들이다.”

22) <경성제대 학보> 4호, 1927. 7 기사.

23) <경성제대 학보> 8호, 1927.

24) 최종고,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귀중법학서의 연구, <법사학연구> 17권, 1996.